발행처 : 복음과기도 미디어 ☎ 070-7417-0408~10, Fax 032-881-0411

제31호 2011.12. 4 ~ 2011.12. 17 (창간일 2010. 10. 3)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복음기도신문

Gospel Prayer Newspaper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십자가 자랑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성도들을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경찰과 행정당국은 증거 은폐 시도…목격자에 함구 요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이집트 콥틱교인 17세 소년 아이만 나빌 라비브가 지난달 급우들과 언쟁 끝에 살해 됐다. 카이로 남쪽 220km 위치한 미냐주 말라위에서 발생한 일이다. 이집트의 언론들은 이 사건을 혈기 왕성한 청소년들 사이에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도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라비브의 부모는 교사가 아들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뗄 것을 명령했고, 아들이 이를 거부하자 급우들이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만은 목걸이 외에도 콥틱교의 전통에 따라 손목에 십자가 문신을 새겼는데 이것도 자주 급우들과 교사들로부터 시빗거리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가 된 십자가 목걸이는 평소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옷 속으로 넣어 착용 했다고 한다. 그런데 교사가 굳이 손목의 십자가 문신을 보이지 않게 옷소매나 장갑 등으로 덮어 가릴 것을 요구하자 아이만이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아이만은 학교 운동장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고, 이에 앞서 교실에서는 교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구타를 당했다고 한다. 아이만은 교실에서 도망 나와 화장실로 피신했으나 붙잡혔고, 운동장으로 끌려 나와 계속 당한 것이다.

폭행이 끝나고 자신의 방으로 옮겨졌을 때까지만 해도 숨은 남아 있었다. 그러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앰뷸런스가 출동하였고, 그는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사망했다. 이번 사건으로 학생 두 명만 구속되었다.

그러나 현지 경찰과 행정당국이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목격자들에게는 함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사건을 학생들 간의 사소하고 우발적인 다툼의 결과로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반면 미나주 정부는 학교의 교장과 교사 등 다섯 명을 학생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직무를 정지 시켰다. 그러나 평소 십자가를 문제 삼았다고 하는 교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출처:매일선교소식).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36-39)

사랑의 하나님, 열방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을 통해 주님 오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이집트 땅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아이만 나빌 라비브 소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금도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복음이 전부된 자들에게 닥치는 이 모든 환란과 박해가 결코 기이한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한다 할찌라도 결코 낙심치 않고 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들을 잃은 아이만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생명의 증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핍박하는 자들이 주께로 돌이켜 용서와 은혜를 구하며 영생을 얻는 선한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들이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기도24·365제공]

▶ 관련기사 3면

INSIDE

▶ 기획 4면

"미리보는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

▶ 인터뷰 5면

"복음을 만나니까,
아주 단순해 지더군요"

- 문화미디어엔터테이먼트 이성호 목사

김용의 선교사 컬럼

“인내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비록 나중에 허사가 될지라도 뭔가 계획이 있고, 대책이 있다고 여길 때 그것을 자기 마음에 위안을 삼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초대하실 때, 갈 바를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하셨지,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아갈 곳’을 보지 말고, ‘지시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걸음은 바로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믿고 걸음을 걷도록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길을 떠날 때, 이전의 내 삶을 모두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내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 10:36~39)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이 소중한 인내를 성령의 열매로 준비해 두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롬 8:24,25)

보이는 소망,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선에서 결과가 보이는 것,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소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 즉, 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 지금의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그날의 차원, 나의 무능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의 한계를 바란다면 그 엄청난 소망에 걸맞는 인내, 그 엄청난 꿈을 담아낼만한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러서지 말고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진리를 결론삼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음 안에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벧전 5:10)

그렇습니다. 나로 인내의 길, 믿음의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나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내는 우리에게서 쥐어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본질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특권이요, 믿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믿음을 써야할 기회, 참고 기다려야할 기회가 오거든 이 놀라운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 메시지 정리

〈순회선교단 대표〉

생명의 떡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중국 / 밥 푸 Bob Fu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까 사42:2

중국의 밥 푸 교수와 그의 아내는 외딴 마을들을 다니며 비밀 성경공부 모임을 인도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배고파했던지, 그는 이 마을에서 놀라고 저 마을에서 또 놀랐다.

잊지 못할 여행이 또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일단 버스를 타고 12시간을 가야 했다. 그런데 날이 궂어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깨진 차창으로 빗물이 들이쳤다. 그날 밤, 그들은 작은 승합차를 몰고 비포장도로를 헤치고 달렸다. 그런데 승합차가 진흙길에 빠져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트랙터를 몰고 세차게 퍼붓는 빗속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러나 트랙터마저도 진흙에 빠지고 말았다. 이에 그들은 흙탕물에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 걷고 또 걸었다. 어느 새 비가 그치고 구름 속에서 보름달이 나와 그들의 발에 빛을 비추어주었다.

그들은 다음 날 새벽이 되어서야 목적했던 마을에 도착하였다. 마을 주민들이 모두 나와 반겼고, 이내 사람들이 하나 둘 씩 가정교회로 모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리고 그렇게 두 시간의 기도가 끝난 뒤에야 예배가 시작되었다. 어떤 이들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무려 80킬로미터를 걸어서 오기도 했다.

가정교회에는 의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판자 조각 위에 앉거나 맨 바닥에 그냥 앉았다. 그곳 주민들은 특별한 복을 받은 이들이었다. 그 곳이 워낙 외진 곳에 위치한 터라 중국 공안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며칠 동안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말씀을 듣기 위해 그들이 지불한 대가에 대해 누구도 그것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몰두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거룩한 욕구에 사로잡혀 있었다.

신앙의 자유가 제한된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여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유국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주일 아침이 돌아올 때마다 교회에 갈지 말지를 갈등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오늘 다른 약속 없나?” “비가 오는데, 교회를 가야 할까?” “어제 늦게까지 TV를 봤더니 졸린데?” “오늘 설교는 재미있으려나?” 우리는 실로 부끄럽게도, 예배가 우리의 시간을 소비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결정하는데 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친 질문서를 검토한다.

반면 신앙의 자유가 제한된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장애와 난관을 뚫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를 갖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구했던 때가 언제인가? 오늘 구하라! 이번 주에는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결심하라!

(출처:주를 위해 죽다(2010), 규장刊)

복음기도 포토 에세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 이집트 알 키디신 교회 순교자들의 사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알 키디신 교회 벽면에 붙어있는 대형 배너. 머리에 황금왕관을 쓴 온화한 표정의 이들의 정체를 알 수 없어 일순 당황스럽다. 안내자의 설명을 듣고 다시 이들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본다. 2011년 새해 첫날 송구영신예배를 드리는 중 발생한 폭탄테러로 이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간 19명의 성도들의 모습이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들의 고백을 믿음으로 듣는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에 치임을 받고 무릎을 꿇으며 주님 품에 안기던 집사 스데반의 함성이 이들의 동일한 고백이었으리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 12:1)

– 사진 : WMM / 글 : 복음선교관학교 아이쉬(생명)애굽 팀

십자가만 자랑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자, 주님은 다시 사역현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맹기원 목사
(예수생명교회)

저는 무속신앙이 일상이던 바닷가 시골마을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때때로 무당을 불러 굿을 하고 일 년 몇 차례 가족 제사를 지내고, 수많은 조상 묘에 절하며 소원과 복을 빌곤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사고로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어 동네 아이들의 놀림감이었던 형님에 대한 부끄러움. 아버지의 음주와 주사는 온 가족의 가슴속에 가난에 대한 불행의식과 원망, 분노, 두려움을 깊이 뿌리 내리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먼저 도시로 나가 예수님을 만난 큰 누님의 가족 전도를 향한 눈물겨운 기도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온 식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중학교 2학년 시절의 저에게도, 어둠 자체였던 영혼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어두운 글과 노래를 가까이하던 것들이 사라지고 찬양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름 성경을 읽고, 밤샘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흉내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뜨거운 은혜의 환경 속에서 예상치 않았던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병든 옛 자아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진심으로 가득했지만 나의 전심은 다른 곳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교회, 나를 위한 하나님 뿐이었습니다. ‘착한 아이’ ‘선한 자아’는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두 번이나 받은 선행상은 자기 의를 삼는 외식증명서가 될 뿐이었습니다. 모범생, 좋은 목회자, 좋은 가장이라는 가면 뒤에 본질적으로 죄인된 나를 꽁꽁 감추면서 기도로 선행으로 의롭고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눈물겨운 최선의 노력을 해왔던 삶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처럼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척 했던 소경이요 속에 썩은 것들이 가득한 외식주의자였습니다. 욕심나는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탐심을 이기지 못해 여러 차례 부모님의 주머니를 뒤지고, 친구와 선생님의 것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도리어 멈출 수 없어 자위하고 은밀하게 성추행하며 음란한 마음 때문에 20대의 숱한 날을 자학적으로 금식하며 노력했지만 잠시 뿐, 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본질적이고 존재적인 고멜이었습니다. 전도사 사역 중에 혼전관계가 발각될까 두려워 임신을 하게 되면 당연하게 낙태를 계획했던 살인자였습니다.

신대원 졸업 후 5년간의 전임 부교역자 생활은 그동안의 애씀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무력한지를 보여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나이 40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복음적인 교회를 해 보겠다고 구호를 내 걸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지, 열심히 전도하면 되겠지.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이 깊어지던 어느 날, 복음학교라는 곳을 통해서 총체적인 복음 앞에 처음 섰습니다. 나에게 복음으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살인하고도 의로운 형의 옷을 입고 살아남은 염치없는 동생이 되었습니다. 호세아를 끝까지 배신하고 음란한 길을 가던 고멜이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죄 된 생명,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나였습니다.

‘정말 나 죽었구나’ ‘지옥이구나’ 하는 마음의 사형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드디어 십자가 복음이 진리가 되고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날, 인정과 평판을 위해 애쓰는 나, 눈물겨운 최선의 삶을 꿈꾸었던 나, 옛사람인 맹기원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창조 전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원형인 나, 정죄함이 없는 생명입니다. 운영하던 까페에 나의 복음을 올리고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나의 존재처럼 되어버려 목숨처럼 알고 있던 나의 1%는 목회성공임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인정받는 목회가 결론이 아니라 순종이 결론 되었습니다.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목회라면 충분합니다.

2008년 여름 24365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슬린 자에게 기도는 고역 자체였습니다. 부담백배였습니다. 목사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실제가 되자, 기도도 실제가 되어갔습니다. 그 후 주님이 인도해주신 기도와 선교훈련을 통해 제 자신이 중보적 존재임을 더 깊이 확인하고 열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된 비전을 보고 생생하게 참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유창하게 기도를 잘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참석했던 기도훈련학교를 통해 아픈 기도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한 영혼과 족속과 민족과 나라들 때문에 얼마나 아프신지, 그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의 목회방법을 고민하던 그 때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어디든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핍박받는 땅과 그 곳의 사람들이 도망하지 않고 그 땅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해 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고스란히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그들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비수 같은 질문이 되어 돌아옵니다. 예수 생명 된 나는 주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를 땅 끝 삼아 복음과 한 운명되어 그들과 동일한 농도로 설 것을 믿음으로 취하며 선포합니다. 내가 이겨야 열방이 이깁니다. 홀로가 아닙니다. 열방 곳곳에 십자가의 복음을 든 복음의 증인들이 영적 전쟁터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던 중 주님은 저를 다시 교회 사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그 교회, 나에게 주겠느냐?’, ‘당연하죠?’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따라 주님의 교회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예수생명교회와 제 자신을 열방기도센터로 올려드립니다.

‘예수생명’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유익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예수생명으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요 교회로 서고자 합니다. 느헤미야52기도를 비롯해서 열방기도센터로 이주민 사역센터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교회를 사용하시도록 드립니다. 주님께서 신부로 받으신 땅 끝에서 존재로 나의 복음을 써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1면에 이어 – 이집트는 어떤 나라인가?

나일 강의 기적이 필요한 나라

면적 99만8천㎢ (10.0배)
인구 8천447만 (1.7배)
도시화 42.8%
종족 아랍인 92.1% 베르베르족 2.0% 집시 1.4% 누비아족 1.1% 기타 0.8% 난민 2.4%
종교 이슬람교 86.7% 기독교 12.8% 무종교 0.5%
* ( )은 대한민국 대비

〈출처: Operation World 2010〉

〈출처:만화 열방기도정보, 넥서스CROSS〉

선교통신

파키스탄, 뎅기열 환자 몇 달째 계속 발병

전 세계적인 재해로 도움의 손길 끊어져. 현지 소식통 기도요청

올 하반기 대홍수로 수백만명의 이주민이 발생한 파키스탄에서 뎅기열로 수백여명이 사망한 이후 현재까지 이 질병으로 인한 환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파키스탄 라호르 한 주에서만도 뎅기열로 그동안 약 200여명 이상 사망했으며, 기온이 낮아지면서 뎅기열도 누구러질 것으로 기대됐으나 최근까지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소식통은 기도편지를 통해 “홍수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뎅기열로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생명이 주께 있음을 알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마을의 주택가는 여전히 침수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곳이 많은 상황이나 전세계적으로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도움의 손길이 끊어져 있다고 한다.

뎅기열은 주로 비가 고인 물웅덩이에 서식하는 모기가 사람을 무는 과정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되어 생기는 병으로 고열을 동반하는 급성 열성 질환이다.

기획 – '다시복음앞에'연합집회 미리보기

"미리 보는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

복음의 이론과 실제를 나눌 강의, 선교헌신영역 부스 운영 등 참여자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과 프로그램 마련

모든 세대와 모든 영역에서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개최되는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는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 동안 다양한 순서와 코너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같은 준비상황 만큼 참가자들의 열기도 후끈하다. 국내외에서 11월 하순 현재 참가 접수자가 3천명을 넘어섰다. 해외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중국 몽골 말레이시아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도미니카공화국 페루 태국 필리핀 호주 등 20여개국에서 60여명의 선교사와 성도들이 참여해 함께 복음의 기치를 세우게 된다. 참여자들을 위해 이번 집회 일정의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권영조 목사
(사이판복음교회 담임)

김성로 목사
(춘천한마음교회 담임)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단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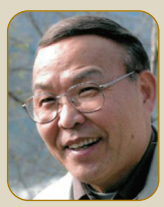
류응렬 교수
(총신신학대학원 교수)

박보영 목사
(인천방주교회 담임)

박영철 교수
(침례신학대학교 교수)

백부장 선교사
(o국 선교사)

송신호 목사
(한국제자훈련원 원장)


송천호 목사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 교수
미국 월드비전 대변인)

안정규 선교사
(K국 선교사)

유기성 목사
(선한목자교회 담임)

유병국 선교사
(WEC국제선교회
선교동원본부장)

유영기 교수
(복음기도신학
연구소 소장)

이동휘 목사
(바울선교회 대표)

정재현 집사
(천마U.S.A 대표
L.A 충현선교교회 집사)

「가나다순」

▶ 복음과 기도의 진리를 선포할 강사진

매일 새벽 온 몸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온 목회자들이 강단을 연다. 경기도 양평 국수리 한국제자훈련원에서 매주 완전한 복음과 공동체 훈련을 통해 30여년간 수만명의 증인들을 배출한 송신호 목사와 미국에서 조기 은퇴 이후 지난 10여년간 국내 소형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순회사역으로 섬겨온 송천호 목사(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교수)등이 새벽 미명에 복음을 선포한다.

현장에서 믿음의 삶으로 복음의 능력이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할 선교사들도 참여한다. 유병국 선교사(WEC국제선교회 국제선교동원대표)와 태평양에서 사이판과 미전도 종족을 대상으로 사역중인 권영조 선교사, 아프리카에서 사역중인 안정규 선교사, 무슬림권에서 사역중인 백부장 선교사가 복음의 길을 증언한다.

기록된 말씀을 생명으로 받은 신학자들에 의해 진리의 빛이 조명된다. 류응렬 교수(총신대 신학대학원), 박영철 교수(침례신학대학 실천신학), 유영기 교수(복음기도신학연구소장, 전 합동신학대학원)가 참여한다.

목회현장에서 복음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목회자도 참여한다. 박보영 목사(인천방주교회)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김성로 목사(춘천한마음교회)가 목숨 건 목회 현장을 실감나게 제시할 전망이다.

또 선교현장에서 복음과 기도의 가치를 깨닫고 복음학교와 기도24365 사역을 섬기고 있는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 대표)는 다시복음앞에서 역사상 가장 자비로운 초대인 십자가에서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것을 선포한다.

한편, 문화 예술 영역에서도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이 참여한다. 먼저 예배인도에는 복음과 기도로 다시복음앞에 서고자 하는 예배자들의 모임인 리턴이 섬기게 된다. 리턴은 머스트워십(김영표 목사), POP(윤석주 감독·김정애 감독), 디사이플스(정신호 전도사), 120성령의사람들(황정식 목사), 인더시티(진연선 전도사) 등으로 구성된다. 또 문화행동 아트리(대표 김관영 목사)는 요한복음을 뮤지컬로 극화한 '가스펠'을 통해 오직 예수생명으로 사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복음을 온 몸으로 표현하게 된다.

▶ 사진 및 현수막전

▷ **사진으로 보는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발자취** = 집회 장소인 선한목자교회의 지하 2층 로비에 마련될 사진전.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발자취를 담은 작은 사진전은 2002년 2월 총체적 복음이 선포되는 '복음학교' 현장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이어서 2003년 4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기도24365', 다음세대 영역에서 증인들이 서고 있는 청소년복음학교 및 Access청소년문화복음학교, 왕의친구학교의 현장, 복음기도동맹의 본격적인 첫걸음이었던 '복음기도동맹 워크숍'을 비롯해 '복음기도신학연구소' 개소, '복음기도신문' 발간, 문화행동 아트리의 뮤지컬 '가스펠', '복음기도신학포럼' 등 각 주제마다 특징 있는 몇 컷의 사진들을 선정해 2011년 현재까지의 발자취들을 연대별로 담았다.

▷ **복음기도동맹 행동강령 현수막전** = 복음의

가치를 천명하며 2011년 초 복음기도동맹이 제정한 선언문에 따라 이에 합당한 삶을 준수하고자 제시된 7개 행동강령이 현수막으로 펼쳐진다. 예배, 복음, 기도, 연합, 권위, 소유, 선교의 7개 주제가 각각 이미지화 되어 하나님 나라 군사들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 선교헌신영역 부스 가동

이번 연합집회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사회 제반영역과 모든 세대에 이르러 역동적인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이 세워지는 것이다. 또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동맹군으로 삶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료 예술 종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선교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이 진행된다. 그동안 국내외로 장단기선교 사역에 참여한 유경험자와 현장선교사 등 증인들을 만날 수 있다.

▶ 8면에 계속

삶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코너 나눔&나눔

"복음을 만나니까, 아주 단순해 지더군요"

- 세상의 꿈을 깨는 사람

이성호 목사(문화미디어엔터테이먼트)

약속장소인 강남 신사동으로 가는 길.. 문자가 왔다."제가 모자에 기타를 들고 있어요. 예배 마치고 바로 와서..."문화 미디어에 종사하는 이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문화미디어엔터테이먼트(이하 문미엔)의 이성호 목사. 그는 인터뷰 내내 이렇게 말했다. 십자가 복음! 그거면 돼요.

- 어떤 분이신지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따라 유년시절을 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 생활하다 대학입학 때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모태신앙 출신으로 집안에 목사님 열분, 선교사님 한 분 계십니다. 아버지는 장로님, 어머니는 권사님. 그런데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가 싫었어요. 예배시간이 끔찍했고, 찬양도 싫고, 설교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20대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에서 노는 거 좋아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긴 했지만 종교 생활이었죠. 93년도 대학 2학년 때 수련회를 통해 주님 만나기 전까지 말이에요."

- 그때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건가요?

"목사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경영학과를 다녔는데.. 그냥 돈 벌고, 평범하게 누리며 사는 게 저의 꿈이었으니까요. 저에게 부르심이나 소명을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복음을 만나니까 아주 단순해지더군요. 이것밖에 할 게 없었어요. 수련회 때 선교사로 콜링 하는데 '주님, 저 좀 써주세요'라고 고백하며 저를 주님께 드렸어요. 한 마디로 자원입대한 거죠."

- 자원입대 후 주님이 삶을 어떻게 이끄셨나요?

"주님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어떻게 살아야할지 고민되었어요. 사회생활을 하고 신학을 할지 바로 신학을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죠. 동시에 교회 사역이 시작됐어요. 때론 좌절도 있었고, 도망치고 싶은 적도 있었지만 주님을 찾는 길 밖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2002년 분당 샘물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7년 동안의 시간을 보낸 후 문미엔을 개척하게 되었어요. 만약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에요."

- 어떤 시간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의 섬기시는 모습에 늘 도전을 받았죠. 그곳에서는 누구도 특별하지 않았어요. 서로 섬기는 리더십을 보며 정말 그런 삶이 가능함을 보았죠. 사회에서도 칭송받을 만큼 정직하고, 모범이 되는 교회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2007년 아프간 사건을 겪으며 달라졌죠. 개인적으로 그 사건을 통해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사건이었어요."

- 조금 더 자세히 나눠주시겠어요?

"순교가 주님의 영광이라는 거 다 알겠는데... 당장 내가 좋아하는 선배(고 배형규 목사)와 그리고 함께 한 분들의 그 일을 겪으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 잔인한 탈레반에 대해 화가 나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해 원망감도 생기더군요. 인간적인 고통은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한 고백은 오히려 새로워졌거든요. 그때 비로소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어요.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들어와 사람이 좋아하도록 맞춰진 사역을 하던 무렵이었는데, 그 사건이 저의 인식을 크게 뒤집은 계기가 됐죠."

-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나요?

"매일 수 천통씩 교회 사무실로 전화가 왔고, 인분, 달걀 등을 던지는 이들을 보았어요. 오해와 비방을 받았지만 정말 그것 때문에 화가 나거나 힘들진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마음이 들더군요.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지, 그게 비정상이구나. 교회가 세상에서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 곧 세속주의구나. 그때 주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는 단순했어요. '너 사람 살리고 싶니? 너 열매 보고 싶니? 다른 길 없다. 죽는 것이다. 너가 죽지 않으면 어떤 부흥도 없다. 사람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그건 부흥이 아닐 것이며, 너의 열매가 아니다. 너가 일하는 원리는 한가지다. 순교의 원리다.' 이후 그게 저의 사역의 원리가 되었고, 문미엔 사역도 그와 동일한 원리로 섬기게 되었죠."

- 그 원리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엔터테이먼트의 영향력은 현대시대에 말할 수 없이 강력하죠. 이것이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정도로 파워풀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처음에는 여기에 복음을 얹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뒤집으셨죠. 아주 쿨(?)하시게. "나 엔터테이먼트 안써!" 세상에서는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세상의 영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연예인들의 인기나, 한류열풍이 선교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인간을 숭배하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었죠. 이것을 도구로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주님은 오직 십자가만을 사용하신다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함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문미엔에서 전해요."

- 그 영역에 종사하는 분들이 듣기 쉽지는 않았겠는데요?

"어떻든 그렇게 권면해요. '영화 한편으로 떼우듯 하지 말고 복음의 삶을 주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화려한 디지털 시대에 철저하게 아날로그로 일하시는 주님께 아날로그의 영성으로 무장하세요.'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영향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은 밑에서 위로 흐르니까요. 세상의 개혁은 중심에서 일어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개혁은 세상의 변두리에서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변두리 영성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엔터테이먼트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철저하게 그 영성으로 무장하는 것뿐이에요. 인기를 버리고 오직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 선교의 도구는 사람이지 문화적인 요소가 아니거든요. 무식하고 불편해 하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봐요."

- 이 영역을 뛰어드신 계기라도 있었나요?

"제가 땜빵에 은사가 있는가 봐요. 제 나이에 주례도 땜빵한 적 있었으니까요(웃음). 2005년에는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선배 목사님 대신 신우회 모임에 갔는데 그곳이 연예기획사였어요. 그게 제가 이 영역에 발을 디디게 된 시점이에요. 원래 비정부기구(NGO) 훈련 받고 2006년도 말.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 때 주님께 백지로 맡기고,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며 아프간 사건을 겪었죠. 그리고 2008년 연예인들의 잇단 자살 사건을 보며, 그것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사건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내와 기도하다가 '가장 목자가 없는 곳으로 가라'는 마음에 순종하게 됐어요. 복음은 교회용이 아니라 전 세계용이다. 너의 강대상은 여기가 아니라 세상이다. 주님이 저같은 세리들과 창녀들에게 찾아와서 커피 마시며 복음을 전하시다가 바리새인들에게 욕 먹으셨던 것이 그려지면서 아.. 이게 내 일이구나 깨닫게 되었죠."

- 문미엔 사역을 소개해주세요.

"저희 사역의 목표와 부르심을 한마디로 하면, 이 영역을 선교지로 삼고 이 영역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의 용사가 되게 하자.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 영역에 있는 분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복음으로 섬기는 거에요."

-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나눠주세요.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이 땅에는 번영신학의 뿌리가 깊어요. 그 덕분에 복음증거를 위해 이 영역에서 정상이 돼야 하고 돈, 실력, 권력, 힘을 갖춰야한다고 해요. 그건 속임수예요. 연예인들 중 상을 타서 주님께 영광 올리며 고백 하는 것, 그래야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될 것이라는 착각도 하죠. 사람들은 결코 그것 때문에 믿지 않는데도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도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자기만 드러날 뿐이죠. 저는 복음의 원리를 믿어요. 낮은 자를 들어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메시지가 싫어서, 이 모임을 나간 분도 계시지만 복음 앞에 반응 하고 복음과 기도로 세워지고 있는 모습도 봐요. 제 일은 돌아다니며 되도록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거에요. 주님이 성육신하셨듯이 무조건 찾아가요. 영화인, 방송인, 연예인, 소속사, CEO 등 다양해요. 최근은 패션업계도... 문미엔 지체들과 함께 다양하게 개척해 나가고 있는데요. 복음 나누고.. 소그룹 성경공부모임 하고 찾아가서 만나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그렇게 사역을 해요."

- 그동안 사역하시며 기억나는 분이나 믿음의 고백이 있으신지요?

"믿음의 원리대로 우직하게 순종하자고 했는데 때로 믿음과 상반되는 역할이나 광고 등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신만 희생하는 건 괜찮은데 함께 일하는 분들까지 손해가 끼치니까 결정하기 난감한 때도 있죠. 마치 복음은 그 모든 일에 대해 간과하고 강요하는 것처럼 들려지겠더군요. 그런데 그럼에도 선택하고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선택에는 당연히 대가지불이 뒤따르기도 하죠. 그렇게까지 주님 앞에 순종했으면 주님이 뭔가 보답을 해주시지 않을까 은근히 기대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정말 쿨하세요. 우리가 흔히 이용하게 되는 보상제도까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끄시더군요. 아무 보답도 안해주세요. 왜냐하면 복음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현실적이에요. 입이 바싹바싹 타들어갈 때가 있죠."

- 기도제목을 나누어주세요

"더 복음앞에 날카롭고 냉정하게 설수 있도록. 사역자로 먼저 그 기준에 견고히 서도록. 미혹하는 시대속에 문미엔 사역이 십자가 복음. 이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는 가치를 붙잡고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정말 복음의 증인들이 세워지길 기도해요. 하나님이 잘해주셔서 잘 됐다는 간증 말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 한 영혼이 살았습니다. 이런 간증 듣고 싶네요. '순종해서 망했지만 그로 인해 모든 스탭들이 주님 믿게 되었어요'라는 간증. 그리고 복음의 칼을 사랑 없이 휘두르면 죽어요. 사랑이 더욱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Y.D

다음 세대 스토리

“작은 순종도 귀찮아 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김예원(10.초3) 어린이의 묵상일기

○월 ○일 여호수아 32장 묵상.
여호수아 32장 10,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10,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감싸주시고 자신의 눈동자 같이 아끼시고, 독수리가 둥지 위를 날며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듯이 아끼신다고 하시니 하나님은 백성들을 아끼시는 분 같아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아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고, 앙모하고 앙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찾고 앙모하고 앙망하게 해 주세요. 묵상하고, 성경쓰기 하고 말씀보는 것이 하나님을 찾고 앙모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데 저는 칭찬받고 누구를 이기기 위해 묵상을 길게 쓰고, 말씀보고, 기도를 잘하려고 해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묵상, 성경읽기, 말씀공부,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앙모하고 앙망하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믿음을 선포하고 결단하여 하나님을 찾고 앙망하게 해 주세요.

오늘 실천해야 할 것. ‘하나님을 찾고 앙망하기’

○월 ○일 여호수아 34장 묵상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었으므로 여호수아는 지혜가 가득해졌어요.

여호수아에게 지혜가 가득하게 하신 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 같아요. 또 9절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따랐습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 저도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떻게 순종하냐면,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고도 고집부리지 않고 엄마 말씀대로 성경책 가방 잊지 않고 들고 오는 것. 이러한 순종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런 작은 순종도 귀찮아하고 싫어해요. 묵상을 길게 쓰도록 노력하지만 전혀 늘지 않은 것 같고, 책가방도 들고 성경책 가방까지 드니까 더 무거워요. 그리고 묵상할 때 늦지 않아야 하는데 아침에 더 자고 싶어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하지만 이제는 순종하게 해주세요. 작은 순종도 귀찮다고 하며 순종하지 않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순종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믿음을 선포하고 결단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실천해야 할 것. ‘작은 순종도 귀찮다고 하지 않고 순종하기’

오늘 하루동안 붙들 말씀.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김예원

2011년 12월의「느헤미야52기도」 참여 교회

➪ 49주차 (12월5일-10일)
청주임마누엘교회 - 느헤미야 김현중 전도사
금광교회 - 느헤미야 임희순 전도사

➪ 50주차 (12월12일-17일)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

「느헤미야52기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느헤미야52팀으로 연락바랍니다.
☎ 070-7417-4366~7, 010-419-24365

***느헤미야**는 이 기도모임의 주관자를 의미합니다.

원어로 읽는 말씀의 샘 5

“복 있는 사람은...(시편1:1)”

시편을 여는 첫 히브리 단어는“아쉬레이”이다. 형용사적인 성격을 가진 이 단어는 복수 형태의 분사 역할을 한다.

우리 성경은 ‘복 있는’이라고 해석을 했다.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어원은 “go straight”(올바른 걸음을 걷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다. 이 히브리 단어 형태는 항상 ‘강조, 계속, 반복, 선포’의 의미를 가지고 나타난다. 이 동사의 의미가 뜻하는 대로,‘올바른 걸음을 걷다’에 이런 의미를 덧붙이면 이렇게 해석 된다.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강조) 올바로 걸어야 돼. 한번이 아니라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끊임없이 계속해서(반복) 바른 걸음을 걸어야 돼. 너 약하니까 유혹받으면 넘어지니까 너 자신에게, 아예 너 주위 사람에게도 나는 올 곧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선언해서(선포), 끝까지 그 길을 믿음으로 가야 돼.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야!”

시편 1:1의 첫 단어 “아쉬레이”의 의미는 ‘축복’(blessing) 보다는 ‘행복’(happiness)에 더 가깝다. 올바른 믿음의 행보에서 솟아 나오는,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내적 평안의 상태를 의미한다(참조. 마 5:3). 따라서 시편 1편의 첫 단어는 믿음의 길을 가는 자의 의인의 초상으로서 말할 수 없는 행복을 토해내는 ‘감탄’(exclamation)이라 말할 수 있다.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복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복음을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세상의 축복이 아니다. 세상에서 사람과 경쟁해 굽은 길을 걸어가면서 내 손에 걸머쥐는 불의한 성공이 축복이 아니다. 이런 복음은 없다. 이런 축복은 거짓이다.

시편 1편을 여는 첫 단어 “아쉬레이”(행복한, happy)” 동일 장르인 시편 119편 1절은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 “복 있는 그 사람은 그의 가는 길이 흠 없이 순전하나니, 오직 여호와의 율법 안에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에서 걸어가는 자만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느니라”

김명호 목사(고대근동언어문화연구소 소장)

기도의 능력

“그리스도인은 죄인들이 읽는 성경”

-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 진척돼

기도에 대한 진리를 믿음의 선진들이 남긴 고전 명저에서 발췌, 소개한다.〈편집자〉

세상은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의해서 신앙을 판단한다.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죄인들이 읽는 성경이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할 편지이다.

“그의 열매는 그들로 알지니”라고 했다. 그것은 생활의 거룩함을 강조한 내용인 것이다. 그것은 생활의 거룩함을 강조한 내용인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그 강조점이 다른 곳에 놓여지게 되었다. 교회 사역자들이나 임직자들을 뽑는데 있어서도 거룩한 면은 고려되지 않는다. 기도의 적격성이 과거의 모든 하나님의 운동이나 계획 속에 반드시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고려되지 않는 듯 싶다. 하나님은 기도에 뛰어난 거룩한 사람을 찾으셨다.

그러나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많지 않다. 기도가 교회의 임직에 대한 가장 으뜸 되는 자격 조건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이 세상에서 위대한 역사가 그토록 적게 일어난다 해도 놀랄 것이 못된다. 그토록 나약하고 결함 있는 수단을 통하여 그토록 많은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인간을 수단으로 일하신다. 먼저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교회를 통하여 또는 개인적으로 그의 백성을 통하여 일하신다.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 위하여 그들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또 거룩한 사람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손 안에서 진척되어 왔다. “하나님께 성경”이라는 표어가 교회 깃발에 다시 나붙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그것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귀에 울려 퍼져야 한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히 12:14)

기도의 본질(1982), E. M. 바운즈, 생명의말씀사刊

중국어 기도 사이트 다오가오(祷告)24365 개통

1억 중국 성도의 선교중국 위한 견인차 역할 기대

21세기 들어 엄청난 성장을 일궈낸 중국 교회 성도들을 열방의 중보자로 세울 수 있는 중국어 기도 네트워크 다오가오(祷告)24365가 최근 개통됐다.

지난 2003년부터 중보기도 사역을 섬겨온 기도24365본부는 최근 중국어 기도 24365 사이트 개발을 완료하고 지난 11월 1일부터 본격 사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dg24365.org.

기도24365본부에 따르면, 사역 초기부터 중국 선교 관련자들의 참여로 중국어 사용자들의 기도참여가 꾸준하게 이뤄져온 가운데 이번 사이트 개통으로 중국 중보기도 사역에 일대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중국 교회는 1억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기독교인을 기반으로 최근 다양한 형태의 선교활동이 드러나며 '선교중국'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같은 추세에 발맞춰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한 기도 네트워크가 개통됐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이트 개발의 기획과 제작에 직접 참여한 K 선교사는 "열방의 소식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기도하도록 하는 온라인 기도정보는 이 사이트가 처음일 것"이라며 "앞으로 중국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삶을 견인해내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도24365의 기도 네트워크에는 현재 외국의 현장 선교사와 사역자들의 열정적인 섬김으로 10여개국의 현지인 기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이들을 위한 현지어 사이트 개발이 계속 이뤄지게될 것을 기대된다. 현재 기도24365본부가 개발키로 한 외국어 사이트로는 영어 외에 러시아어, 스페인어 사이트 등이며 함께 섬길 수 있는 지원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올 해 느헤미야52기도 연인원 1만5천여명이 참여"

교회 또는 가정이'만민의 기도하는 집'경험
2012년도 느헤미야52 기도 참가자 또는 교회 모집중

올 한해 가정과 교회를 24시간 연속기도가 드려지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는 느헤미야52기도에 연인원 1만5천여명이 최저 한시간 이상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도24365본부 산하 느헤미야52팀에 따르면, 1일 24시간 52일간 진행되는 '느헤미야52일(日) 기도'와 1주 144시간 52주 연속으로 기도하는 '느헤미야52주(週) 기도'에 수백여 개인과 교회가 기도팀을 구성, 이같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느헤미야52기도란 구약의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지도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 역사를 52일에 걸쳐 완공한 것처럼, 교회나 가정이 24시간 기도에 참여 52일 또는 52주 연속기도하여 열방의 회복을 소망하는 기도동원 사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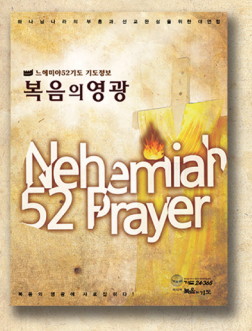
올해 52일 기도는 총 3차례 156일 동안 490명이 신청해 5천여명의 기도자를 동원돼, 지난 11월21일까지 진행됐다. 또 52주 기도에는 190여 교회(중복신청 포함)가 1만여명의 기도자를 동원해 올해 52주째 주말인 12월31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52주 기도는 교회나 개인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씩 맡아, 연속기도로 진행된다.

한편, 이 기도에 신청한 교회나 성도 개인은 교회 또는 가정에서 '기도실'을 마련하고 지인들을 동원하여 하루 24시간 또는 한 주간 동안 연속기도의 분깃을 감당하게 된다.

기도팀 신청을 받고 기도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도동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느헤미야52팀 최신광 선교사는 "이 기도시간을 통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믿음을 회복했다는 간증을 많이 듣고 있다"고 말했다. 최 선교사는 또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을 중보하는 기도를 통해 기도자 개개인이 심령에 성전이 무너져 있음과 회복돼야할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기도의 능력을 실감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며 며 "2012년에도 더욱 많은 교회와 성도가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2012년 느헤미야52기도 참가신청 안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기도24365 웹사이트(www.prayer24365.org)로 접수하면된다. 신청자 또는 교회에 대해서는 기도동역자로 순회기도팀을 파송한다. 문의 : ☎ 010-419-24365, 070-7417-4366



느헤미야52 기도 기도정보집
「복음의 영광」 판매

기도24365본부에서 기획하고
복음과기도미디어에서 제작, 발간하는 이 책자는
'복음의 영광은 당신에게 실제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매시간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도정보집이다.

총192쪽 | 복음과기도미디어 | 값6,000원
구입문의 ☎ 070-7417-0408~9 20,000원 이상 주문시 배송료 무료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메시지
김용의 선교사 새로운 메시지 '복음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라' 출시

김용의 선교사의 메시지를 제작 보급하고 있는 복음과기도미디어는
2011년 11월에 열린 대전순회복음집회 내용을 담은 17번째 메시지
「복음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라!」를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동영상과 MP3가 수록된 CD, 오디오CD, Tape으로 제작됐으며
CD는 각 4,000원, 오디오CD는 각 6,000원 테이프는 각 2,000원입니다.
2만원 이상 주문시 배송료 무료.
문의 및 주문: 010-6326-4641, 070-7417-0408~9
gnmedia@gnmedia.org
[입금계좌 : 국민은행 651002-01-121175 김송이]

2020년까지 일본에 1천여개 교회 개척 추진

일본, 교회 개척 위해 선교 단체들 협력

SIM선교회의 존슨 대표(맨 왼쪽)와 Asian Access 선교회의 핸들리 대표(왼쪽에서 3번째)

미국에 본부를 두고 1,600명 이상의 선교사를 50여 국가에 파송한 국제 선교단체 SIM선교회와 아시안 액세스선교회가 함께 앞으로 9년 동안 1천 개의 교회를 일본에 개척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한국선교연구원은 전했다.

아시안 액세스는 지난 40년 동안 일본 전역에 6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며 오랫동안 일본 선교에 참여해온 단체.

이를 위해 이 두 선교단체는 2020년까지 일본에서 교회를 개척할 선교사들을 모집하여 복음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복음 전파를 위한 각 단체의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SIM선교회는 이번 협력에 선교사를 모집, 훈련, 재정을 당당하고, 아시안 액세스선교회는 교회 개척 사역에 일본 교회와 파송된 선교사를 연계하는 등 현지 정착에 관한 전략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일어난 지진 해일 사태 이후 일본에서 복음에 개방적인 분위기가 증가하면서 일본 전역의 목회자들과 특히 피해를 입었던 지역의 목회자들이 상대적으로 복음화 되지 않았던 지역들에 대한 더 많은 교회 세우기를 염원했고 이들은 아시아 액세스선교회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4면에 이어 – '다시복음앞에' 연합집회 미리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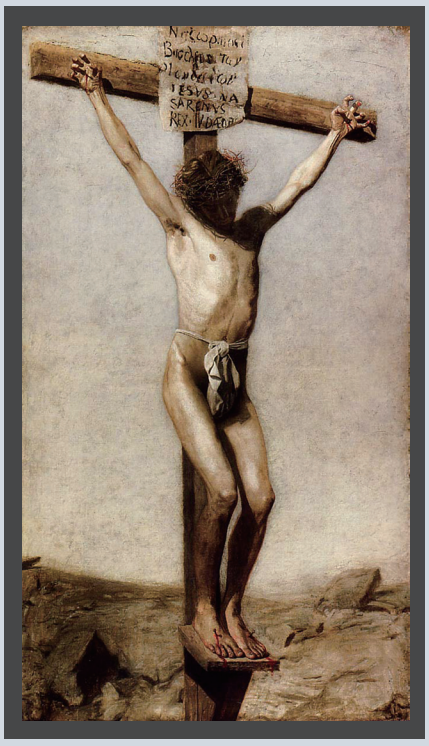
▶ 신문발간

본지를 발간하는 복음과기도미디어에서 복음기도신문 특별판을 제작, 현장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배포 된다. 이 신문은 연합집회 현장에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집회 현장의 이모저모를 담은 따끈한 소식들이 신문으로 발간돼 매일 참여자들의 손에 들려진다. 기존 독자들은 인터넷(www.gnmedia.org)에서 PDF판으로 볼 수 있다.

▶ 판매 부스 운영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름받은 참여자들이 사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각종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는 부스가 마련된다. 죠이선교회 출판부에서 최근 발간한 「세계기도정보」 2010년 개정판 (제이슨 맨드릭 저)를, 예수전도단에서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 (김용의 저)을, 규장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유기성 저)을 직매한다. 또 선교단체 '복음과기도미디어'에서 제작한 테이프와 CD, DVD 등 김용의 선교사 메시지 시리즈가 최근 새롭게 출간된 시리즈를 포함하여 총 17종으로 준비된다. 이와 함께 느헤미야52기도 기도정보집 「복음의영광」 등도 구입할 수 있다.

또 일명 '리턴 티(Return-T)'로 불리는 복음기도동맹 티셔츠를 판매하는 곳이다. 맨투맨 타입의 리턴 티는 '다시복음앞에' 마크와 소매 어깨 부위에 '복음기도동맹' 마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봄, 가을, 겨울 착용용으로 색상은 그린카키(Green khaki-한국군복 유사색상)와 브라운카키(Brown khaki-미군복 유사색상) 2종이다.



"어! 이건…" 한번도 본 적이 없는 듯한 십자가에 매달린 벌거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신음같은 외마디 웅얼거림이 터져나왔다. 너무 리얼하다. 아주 짧은 순간,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이것을 어떻게 신문에 싣지? 미술평론가 이상윤 집사님의 해설을 보며, 십자가에 담겨있는 진리를 한층 더 실증적으로 깨닫게 된다. 맞아 그 수치의 십자가였구나! 나의 죄성이 바로 그런 수치감을 일으키는 것이었지… 〈편집자〉

뷰즈 인 아트

Views in Arts

수치와 부끄러운 죄를 기억나게 하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이 작품을 그린 에이킨스 (Thomas Eakins)는 미국을 대표하는 화가로 특히 사실주의 회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에이킨스는 유명한 교육자였고, 아주 지적인 화가였다. 그는 주로 주변의 인물이나 저명인사의 초상화 또는 수술, 해부학 강의 등의 장면을 주제로 택했다. 손에 잡힐듯한 생생한 사실성과 예리한 비판은 당대의 누구도 능가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렇듯 철저히 현실에 기반을 둔 그가 십자가를 주제로 택한 점은 학계에선 대단히 이례적인 것으로 비춰진다.

어떤 학자들은 십자가 책형이라는 육체의 고통이 의학에 관심이 많았던 그를 자극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하지만, 치밀하게 묘사된 가시관과 십자가 위에 헬라어와 라틴어로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종이 한 장의 고증을 근거로 가늠해본다. 그가 그리고자 했던 것이 고통 받는 죄수의 모습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가 그에게 '실제'임을 묘사하려 했다는 것임을.

그러나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은 풀리지 않았다. 이처럼 사실적인 묘사에 누구보다 능통했던 그가 왜 얼굴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을까 하는 점이다. 나는 이 해답을 최근 깨닫게 됐다. 얼마전 공연을 마친 극단 아트리의 뮤지컬 "가스펠 Gospel"〈본지 30호 참조〉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나'의 십자가 장면을 통해서였다. 이 장면의 참혹함은 너무나 생생하여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표현할 다른 방법은 없었다.

에이킨스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표정이나, 고통에 일그러진 표정을 섬세하게 묘사하지 않았다. 대신, 예수의 얼굴을 어둠 속에 숨겼다. 그럼으로써, 자연스레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림에 투영시키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에는 전통적인 십자가 그림에 늘 등장하던 인물들이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았다. 십자가의 뒤에 펼쳐진 빈 땅은 독백의 무대가 되어 이것이 곧 나의 십자가임을 증명한다. 내가 죽은 십자가, 내가 달린 그 십자가, 예수와 함께 내가 그곳에 서 있다. 에이킨스가 작품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나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삶', 바로 '복음' 그것이 아닐까?

(그림설명: Thomas Eakins, 〈The Crucifixion〉, 1880, oil painting, 96x54inch, Philadelphia Museum of Art.)

글. 이상윤

후원자 명단

(2011년 11월 9일 ~ 24일. 가나다 순)

△개인
고희숙 김수현 김종희 박인원 윤민선
이란영 임재아 정영훈 최홍석

△교회 및 단체
순회선교단 순회선교단복음기도모임

*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배포하며 함께 보실 것을 권합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희망구독부수와 주소를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구독료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제작과 배포에 헌금으로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17454 예금주:김송이(복음기도신문)

기사 제보 · 구독 · 헌금 · 동역 문의
☎ 070-7417-0408~10
E-mail : gnpnews@gnmedia.org
(400-800) 인천시 중구 항동7가 1-44
요셉의 창고 2F 복음기도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강호, 인쇄인 : 서안묵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인천,다06036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